



중국 재보험시장의 최근 동향

이소양 연구원

중국 재보험시장의 최근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, 그 원인은 2016년부터 시행된 신지급여력제도(C-ROSS)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. 그러나 재보험 수요를 형성하는 원수보험시장의 성장이 양호하고 재보험시장 활성화 추진 등 규제 변화가 진행 중이어서 재보험시장의 성장률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. 중국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역대 재보험회사의 수도 2016년 10개사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
■ 2016년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(C-ROSS) 도입 이후 중국 재보험시장은 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

- 중국은 2016년부터 EU Solvency II와 유사한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인 C-ROSS를 도입하였는데, C-ROSS는 계량화 가능한 보험위험, 시장위험, 신용위험을 평가하며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평가 점수를 반영해 요구자본을 산출함¹⁾
- 신용평가기관인 Dagong Global에 따르면²⁾ 수재보험료 기준 2016년 재보험시장의 성장률은 2006~2015년의 연평균 성장률 19.3%에서 5~10%로 급락한 것으로 추정됨
 - 중국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역대 재보험회사의 2016년 재보험시장 수재보험료는 2015년에 비해 8.9% 감소한 978억 위안으로 하락함
 - 손해보험시장 보험료수익에서 약 70%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위험계수가 C-ROSS 도입 이후 하락하면서 대다수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가 감소함
 - 생명보험에서는 2016년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³⁾ 이후 투자형 생명보험의 판매가 줄고 보장성 생명보험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투자형 생명보험의 금융재보험 출재가 감소함

1) 김해식·이경아(2014. 12), 「중국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 개혁(C-ROSS) 영향과 전망」, 『KiRi Weekly』, 보험연구원

2) Dagong Global(2017. 9), “China’s Reinsurance Market Review”

3)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6년 3월부터 생명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 생명보험 판매 제한, 유니버설보험 책임준비금 평가이율 인하 및 특약 형태로 설계된 유니버설보험의 판매 금지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함

■ 그러나 성장성이 높은 원수보험시장과 규제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재보험시장의 성장률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⁴⁾

- 중국 원수보험시장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.9%에서 2016년 9.9%로 상승하였으나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가 여전히 낮아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⁵⁾
 - 2016년 중국 원수보험시장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는 각각 4.2%, 337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평균 6.3%, 638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
- 2017년 5월 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초대형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인 ‘일대일로’에 대하여 1,35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인프라 건설 및 무역거래 분야의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⁶⁾
- 2014년 8월에 발표된 ‘현대보험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의견’에서는 재보험시장 활성화, 재보험 지역허브 구축 및 재보험회사 인허가 확대 등의 목표가 제시됨⁷⁾
 - 한편, 2017년 9월 금융당국은 향후 외국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함
- Dagong Global은 2017~2018년 중국 재보험시장 수재보험료 성장률이 2016년 5~10%에서 10~15%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

■ 중국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역내 재보험회사는 2015년 8개사에서 2016년 10개사로 늘어났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- 2014년 8월 ‘현대보험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의견’ 발표 이후 여러 기업들이 재보험회사 설립 계획을 밝히고 있어⁸⁾ 재보험시장 전망을 밝게 보는 것으로 평가됨
 - 2016년 3월 중국인민손해보험회사(PICC), 2016년 12월 진해금융지주회사(QFH)는 각각 중국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고 신규 재보험 자회사를 설립함
 - 또한 25개 기업이 금융당국의 재보험회사 설립 허가를 기다리고 있음
- 한편, 외국 재보험회사인 파트너리(Partner Re) 및 코리안리(Korean Re)는 역외 재보험회사로서 재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나 C-ROSS 도입 이후 각각 중국 지점 설립 계획을 발표함
 - 이는 C-ROSS하에서 원수보험회사가 역외 재보험회사로 재보험을 출재할 때 적용받는 신용위험계수가 역내 재보험회사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임 **kiri**

4) 上海证券报(2017. 9), “劳合社CEO:抓住保险市场的‘中国机会’”

5) Swiss Re(2017. 7), “World insurance in 2016: the China growth engine steams ahead”

6) Insurance Asia News(2017. 5), “China draws on insurers to fund One Belt One Road”

7) 中国经济网(2015. 4), “再保牌照需求激增,中再‘一家独大’或终结”

8) 证券日报(2016. 8), “国内再保险将进入调整期,二十多家公司渴望获牌照”